

## 국내 산업 전망

### 요약

#### 철강

1996년 상반기에는 철강 업체들의 공급 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국내 수요 호조세가 지속되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급증했다. 조강 내수는 철강 수요 산업의 호조로 전년 상반기에 비해 16% 증가했다. 조강 수출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470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내수 확대에 따른 수출 물량 축소, 선진국 경기 침체와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 그로 인한 국제 철강재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 조강 생산은 전기로 업체의 설비 증설로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1,960만 톤에 달했다. 한편, 수입은 국내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강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나 증가해 598만 2,000 톤을 기록했다. 수입 확대 요인은 국제 가격의 하락과 가수요 수입의 증가이다.

1996년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 경제 불황으로 주요 철강 수요 산업의 생산 둔화가 예상된다. 이

에 따라 1996년 철강재 내수도 전년보다 축소된 6.2%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다만,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공급 능력 확대와 내수 부진으로 상반기에 비해 수출 여력이 생겨 연간 5.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둔화와 재고 조정으로 조강 생산은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되어 8.0% 증가에 그치고, 수입도 하반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연간 2.5%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1997년에는 199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본격화되어 제조업의 설비 투자가 둔화, 철강재 내수 증가폭이 작아져 1996년 대비 6.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철강 시황이 다소 개선되고 철강 업체들이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수출은 1996년에 비해 5.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주력 품목인 판재류 등 고급강 부족 현상은 지속되어 수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생산은 1996년에 완공된 철강 설비들이 1997년에 본격 가동되어 8.7% 증가하고, 수입은 재고 누적으로 1996년보다 4.5% 감소할 전망이다.

## 석유화학

1997년 석유화학 경기는 對중국 수출 회복에 힘입어 1996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호경기를 보인 1995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1997년 하반기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공급 증대로 수출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내수 시장도 그동안의 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 확대 효과가 현저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불황기에 대비한 경영의 효율화, 사업 구조 재편, 수출선 다변화, 기술 개발력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반도체

1996년의 반도체 산업은 16M D램의 가격 폭락으로 인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물량 조절을 통한 가격 하락 저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 향상, PC 업체의 재고 조정, 대만 등의 새로운 업체 진입과 같은 공급 증가 요인이 있어 아직까지 가격 안정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반도체 B/B율이 상승하는 등 경기 호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3/4분기 이후에는 연말 PC 특수에 기인한 반도체 수요의 증가 등에 의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175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1997년에는 16M D램의 가격 안정세 유지 및 각종 전자통신 기기 등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1996년보다는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만, 싱가포르 등의 신규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인해 작년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통신 기기

1996년의 국내 경기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전반적인 침체 현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통신 기기 수출도 엔저 현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침체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수 부문은 33% 성장이라는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내수 경기의 호황은 171%에 달하는 휴대폰 수요의 증가, 통신 사업자들의 설비 증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 하반기에는 내수와 수출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시장은 디지털 서비스의 본격화, 신규 서비스 업자의 판촉 확대를 기반으로 호경기가 예상된다. 수출은 원고 현상의 퇴조와 엔화 가치 상승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통신 시장은 글로벌화, 개방화, 경쟁체제화 및 민간 참여의 확대 등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2이동통신 사업자의 디지털 이동 전화 서비스 개시, PCS 등 7개 분야의

신규 사업자 선정 등 변화의 와중에 있다. 대외적으로도 동남아 시장의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과 미국에서의 PCS 사업 참여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앞으로 통신 기기 시장은 팽창을 거듭할 것을 보인다.

1997년도 통신 기기 수출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회복, 세계 경기의 상승 등으로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통신 기기 시판 규모도 26.4%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공작기계

공작기계 산업 경기는 1995년 말부터 하강기에 접어들었으며, 1996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1995년 4/4분기부터 설비 투자가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8%밖에 늘지 않았다. 하지만, 수출 시장은 예년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생산 감축으로 이어지는 않을 전망이다.

1996년과 1997년은 낮은 설비 투자 증가율때문에 내수가 크게 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수출도 엔저 효과, 시장 다변화의 한계 등으로 신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빠르면 1997년 4/4분기, 늦어도 1998년 1/4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공작기계 업계는 장차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중

소형 저가 기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신제품 개발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며, 정보 기술의 도입 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술혁신체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자동차

1996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대중화 성숙기 진입, 경기 부진 등으로 전년에 이어 성장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엔저 현상, 선진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1997년에도 뚜렷하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수의 경우 1996년보다 5% 정도 증가한 17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은 수출선 다변화 한계, 선진 자동차 업체들의 저가 소형차 개발 등으로 1996년보다 크게 둔화된 9.3%의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 현지 생산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별 제품 차별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데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연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환경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개발도 저공해 자동차 개발과 리사이클링 기술

등 환경 대응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조선

세계 조선 시장의 부진과 1995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엔저의 영향으로, 1996년 수주는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출은 증대된 생산 설비의 가동과 1995년까지 확보된 건조 물량으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1997년의 수주는 1996년보다 16.4% 정도 증가한 640만 GT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유조선의 대체 수요를 포함해 세계 전체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조선 업체들이 이미 1998년 상반기까지 조업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여서 납기 측면의 경쟁력 우위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수출은 수주 물량 소진으로 인한 조업량 조절과 1996년도 수주 부진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80년대 초부터 실시되어온 일본 조선 업계의 생산 설비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선박 건조 능력이 실질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2000년대 조선 시장을 놓고 한일 양국간의 시장 쟁탈전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

1996년의 국내 건설 수주는 연간으로는 전년 18.7% 성장보다 크게 낮은 13.1% 성장에 머무를 전망이다. 민간 건설 수주는 전년 18.7%의

성장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해 9.6% 수준에 머무른 데 비하여, 공공 건설 수주는 정부 투자 확대에 힘입어 18%대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1996년 민간 건설 부문의 부진은 건축과 주택 양 부문의 위축에서 기인한다. 우선, 민간 건축 수요는 국내 경기의 본격 하락 전망에 따라 사무용 건축 수요가 축소되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옥 건축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1997년 국내 건설은 1996년보다 약간 낮은 12.9%의 성장으로 76조 5,000억 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은 올해보다 낮은 8.8% 성장에 머물고, 공공 부문은 올해보다 높은 18.5%대에 이를 전망이다. 민간 부문의 주택 부문은 약간 활성화되는 반면, 건축 및 토목은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것이다. 다만,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부문 건설 투자를 확대해 공공 부문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199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신규 참여 건설 업체의 증가와 내년 공공 건설 시장에 외국 건설 업체의 참여로 인하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개별 건설 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주요 산업 동향 및 전망

산업	주요 제품	단위	1995	1996(e) <sup>1)</sup>		1997(e) <sup>1)</sup>	
					증감률 <sup>2)</sup>		증감률
철강	조강	내수	37,306	40,141	7.6	42,630	6.2
		수출	9,556	9,919	3.8	10,422	5.1
		생산	36,772	39,714	8.0	43,169	8.7
		수입	10,090	10,346	2.5	9,883	-4.5
석유화학	제품 계	내수	7,211	7,440	3.2	7,730	3.9
		수출	3,089	3,514	13.8	4,040	15.0
		생산	9,064	9,632	6.3	10,393	7.9
		수입	1,236	1,320	6.8	1,377	4.3
전자	반도체	내수	89,691	103,234	15.1	113,557	10.0
		수출	221.1	175.6	-20.6	188.4	7.3
		생산	192,133	162,352	-15.5	176,152	8.5
		수입	90.7	103.9	14.5	116.8	12.4
기계 <sup>3)</sup>	공작기계	생산	36,190	42,089	16.3	51,959	23.5
		수출	16,097	21,248	32.0	26,856	26.4
		수입	2,292	2,578	12.5	3,102	20.3
		내수	1,841	2,411	31.0	3,188	32.2
자동차	승용차	수출	18,772	19,818	5.6	21,047	6.2
		수입	3.6	5.5	52.8	6.8	23.6
		생산	8,988	10,340	15.0	10,986	6.2
		수입	16.4	17.7	7.5	19.1	8.3
건설	상용차	내수	1,132	1,175	3.8	1,235	5.6
		수출	856	1,040	21.5	1,155	9.1
		수입	1,988	2,215	11.4	2,390	7.9
		내수	424	445	5.0	466	4.7
조선	신조선	수출	122	130	6.6	145	11.5
		수입	546	575	5.3	611	6.3
		판매계	2,534	2,790	9.7	3,001	6.8
		수주	7,133	5,500	-22.9	6,400	16.4
건설	공공 수주	수출	50.5	66.0	30.7	68.2	3.3
		생산	5,663	7,547	33.3	7,800	3.4
		건축	32.4	35.6	9.9	38.9	9.2
		토목	3.2	3.4	6.3	3.5	4.1
건설	민주 수주	소계	35.6	39.0	9.6	42.4	8.8
		건축	7.0	9.2	31.4	11.4	23.4
		토목	17.4	19.6	12.6	22.8	16.2
		소계	24.4	28.8	18.0	34.2	18.5
총수주액			60.0	67.8	13.2	76.6	12.9

자료: 대한 건설협회.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 전자공업진흥회, 「전자진흥」, 각호.
- 통계청, 「기계수주통계」, 각호.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공작기계」, 「통계 속보」, 각호.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호.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각호.
- 한국철강협회.

주: 1) 1996년 및 19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2) 전년 대비 증감률임.

3) 공작기계, 반도체, 조선 산업의 수출입 증가율은 달러 기준임.

## 철강

### 1996년 상반기 동향

1996년 상반기에는 철강 업체들의 공급 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국내 수요의 호조세가 지속되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급증했다.

상반기 조강 국내 수요는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6% 증가했는데, 이는 설비 투자의 확대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철강 수요 산업의 호조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수요는 명목 소비 형태로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생산 업체와 유통 업체 등에서 많은 재고를 안고 있다.

조강 수출은 전년 상반기보다 3.3% 정도 감소한 470만 톤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출 감소는 철강 내수의 확대로 수출 물량 확보가 용이치 않았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수요 감소, 그에 따른 국제 철강재 가격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다. 최종 강재 품목별로 조강류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판재류는 국내 철강 수요 산업의 경기 호조와 미국의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제소때문에 양 부문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조강 생산은 전기로 업체의 설비 신증설과 전로강의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한 1,960만 톤을 달성했다. 전기로는 전년보다 17.8% 늘어난 789만 톤의 조강 생산량을 보여 조강 생산량 점유비가 40.3%에 이르고 있다.

철강 제품의 수입은 국내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강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나 증가하여 598만 2,000 톤을 기록했다. 국제 철강재 가격의 하락과 경기 활성화에 대비한 가수요 수입의 증가가 이같은 수입 확대의 요인이었다.

〈표 1〉 1996년 상반기 수급 실적

(단위: 천 톤, %)

	조강		철강재 계		철강재 조강류		판재류	
	1995	1996 상반기	1995	1996 상반기	1995	1996 상반기	1995	1996 상반기
내수	37,306	20,300	35,524	19,280 (16.1)	17,336	9,515 (17.5)	17,645	9,464 (15.1)
수출	9,556	4,700	8,679	4,350 (-1.6)	1,036	530 (-1.7)	7,562	3,778 (-1.6)
생산	36,772	19,600	39,276	21,020 (11.1)	16,392	9,034 (14.8)	22,382	11,686 (8.5)
수입	10,090	5,982	4,951	26,100 (24.3)	2,055	1,019 (33.0)	2,826	1,550 (19.4)

자료: 한국철강협회.

주: 1) 철강재 실적은 수출 반제품 및 수입 핫코일을 제외한 수치임.

2) (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품목별 동향**

○ 조강류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재고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철근은 전기로 업체들의 재고량이 57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유통 업체 재고량 30만 톤을 감안하면 철근 재고량은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철근은 몇년 전만해도 품귀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기로 업체들의 설비 증설로 공급 능력이 연간 1,000만 톤에 달하는 상태에서 건설 경기가 계속 침체돼, 사상 최대의 재고 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형강의 재고도 전년 동기예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 1996년 6월 말 현재 재고량이 14만 7,000 톤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선재는 연강 선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해 1996년 상반기에만 33만 2,000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1995년 상반기보다 42%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이런 수입 급증은 설비 투자를 확대한 2차 가공 업체들이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수입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 판재류-후판

선박 건조의 주 원료인 후판은 조선 산업의 생산 호조로 내수가 229만 톤으로 4.8% 증가했지만 생산은 국내 설비 능력의 한계로 1.9% 증가한 182만 3,000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내수 위주의 공급 정책으로 수출은 28만 6,000 톤으로 15.1%나 크게 감소했고, 수입은 가수요까지 겹쳐 6.3% 증가한 77만 3,000 톤에 달했다. 특히, 선급재 등 고급강 위주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수입 금액은 더욱 크게 늘어나 1995년 상반

기보다 20.8%나 증가했다.

○ 판재류-핫코일

판재류의 기초 원료인 핫코일의 경우는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내 수요 산업의 수량은 꾸준히 늘어 내수 증가·수출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동남아의 경기 하강과 재고 조정 등으로 수입 수요가 정체되면서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 하락도 동반되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일반강의 경우에는 한보의 참여로 공급 능력은 증가했으나, 고급강은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핫코일(차공 전용 제외) 내수는 전년 동기보다 10.7% 증가한 382만 3,000 톤을 기록한 반면, 수출은 149만 2,000 톤으로 2.5% 증가했다. 한편, 생산은 896만 1,000 톤으로 4.3%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POSCO의 냉연 공정용 투입 증가에 따른 판매 감소와 한보의 가동률 저하가 주된 원인이었다. 그로 인해 수입이 전년도보다 53.8%나 증가해 수입 규모가 135만 5,000 톤에 달했다.

○ 판재류-냉연강판

냉연 판재류는 자동차, 가전 제품 등의 생산 호조에 따라 내수가 328만 3,000 톤으로 올 상반기 중 10.7%의 높은 증가율은 나타냈다. 특히, 용융아연도금강판(GI)이 18.9%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전기아연도금강판(EGI)은 12.5%, 컬러강판은 16.1% 증가하는 등 내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수출은 148만 1,000 톤으로 160만 7,000 톤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해 내수 급신장, 수출 부진

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EGI의 경우 수출 감소폭이 13.7%에 달해, 각 업체가 공급 물량이 한정된 가운데 내수 위주의 판매 정책을 펴왔다.

### 철강 업체 경영 실적

이같은 철강재 재고 증가와 제품 가격 하락 및 수입품의 시장 잠식으로 철강 업체의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특히, 대규모 재고를 안고 있는 철근 등 조강류를 주로 생산하는 전기로 업체와 특수강 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심했다.

1996년 상반기 경영 실적에 따르면, POSCO와 동국제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철강 업체들이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1차 금속 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철강 업종 전체 매출은 전년도보다 7.1% 증가하였으나, 경상 이익은 39.3%, 순이익은 45.2%나 감소해 경상 이익 3,684억 원, 순이익 2,533억 원에 머물러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판재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POSCO는 후판, 열연강판 등 판재류 판매 호조로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4조 1,740억 원, 경상 이익 4,774억 원, 순이익 3,858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 1996년 전망

1996년 하반기 이후에 철강재 내수가 둔화되어 수출이 전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는 한편, 수입은 수요 기반 악화와 함께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철강재 국내 수요 감소는 철강 수요 산업 경기

부진에 기인한다. 1996년 하반기 국내 경제 성장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철강 수요 산업인 국내 건설 부문에서는 경기 하강에 따른 민간 부문의 수주 부진, 자동차 산업에서는 수출과 내수 둔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는 철강재 해외 수요가 정체 내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설비 확충에 따른 공급 능력 증대와 내수 부진으로 상반기에 비해 수출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철강 업체들이 하반기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해,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누증의 해소를 위해 수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국제 철강 시장을 주도해온 일본의 철강 업체들이 판재류를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출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은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되어 1996년 조강 생산은 전년 증가율보다 낮은 8.0% 증가에 그치고 수입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은 한보의 박슬라브 설비 가동과 포스코의 미니밀 완공, 강원산업의 신규 설비 준공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성장 둔화와 재고 조정을 위한 설비 보수로 하반기 생산은 상반기보다 약간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수입은 국내 수요 둔화와 상반기에 누적된 재고 소진에 따라 하반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연간 2.5%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종합해 보면, 올해 철강 산업은 내수 부진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증가세의 둔화와 생산 증가로 철강 부족 현상이 상당히 해소되기



때문이다. 수입은 국내 재고 누적으로 상반기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철강 설비 능력**

전기로 업체들의 활발한 설비 투자로 공급 능력에 있어서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제선 부문은 POSCO의 설비 증강이 없어 2,196만 톤으로 전년과 동일하나, 제강에서는 1995년보다 9.1% 증가한 4,2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로 제강 설비 증대가 두드러져, 오는 10월 POSCO의 박슬라브 설비(연산 180만 톤) 준공과 8월 스테인레스제강공장(42만 톤) 준공, 그리고 강원산업과 기아특수강의 전기로 증설로 조강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열간압연은 강원산업 형강공장, 중소 철근 업체와 형강 업체들의 설비 신·증설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4,446만 톤이 예상되며, 냉간압연은 연합철강의 설비 합리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913만 톤이 증가하여,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면처리강판의 경우는 연합철강, 구삼제강 등의 증설로 아연도금강판이 20.5% 증가한 371만 톤, 컬러강판은 22.1% 증가한 100만 톤이 예상

되고, 강관도 업체 설비 증설로 전년대비 12.4% 증가한 455만 톤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 증강으로 전기로 업체와 2차 가공 업체들은 최근의 철강 경기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조강류를 비롯한 강관 등의 품목은 공급 과잉 해소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전망**

199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으로 철강재 내수 둔화가 지속되나,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이다. 불황이 본격화되어 제조업의 설비 투자가 둔화되어 철강재 내수의 증가폭이 올해보다 작아져 내수의 증가율이 1996년 대비 6.2%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철강 시황이 다소 개선되고 철강 업체들이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강 국내 수요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강재 수요가 큰 자동차, 건설, 일반 기계 등의 생산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6.2% 증가한 4,263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은 수출 여건이 1996년보다 다소 나아져 1996년에 비해 5.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철강재 재고 조정과 산업 생산

**<표 2> 1997년 조강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내수	40,141	7.6	42,630	6.2
수출	9,919	3.8	10,422	5.1
생산	39,714	8.0	43,169	8.7
수입	10,346	2.5	9,883	-4.5

주: 1996년 및 1997년은 본 연구원이 전망한 것임.

활동 호조로 쏠세게 철강 수요가 올해 1% 내외의 미미한 증가에서 내년에 3% 증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5년 하반기부터 계속 약세를 보여온 국제 철강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채산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WSD 등은 국제 철강재 가격이 1997년에 20%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종 강재 품목별로 조강류 위주의 저급강은 전기로 설비 위주의 공급 능력 확대, 그리고 재고 누적에 의한 국내 수요 기반 약화로 밀어내기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수출 주력 품목인 판재류 등 고로 생산에 의한 고급강 부족 현상은 지속되어 수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생산은 금년에 완공된 철강 설비들이 내년에 본격 가동되어 핫코일, 형강, 스텐레스강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8.7% 증가한 4,316만 9,000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은 판재류를 중심으로 철강 공급 부족이 계속되나, 저급강은 국내 재고 누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1996년보다 4.5% 감소한 988만 3,000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박병철)

## 석유화학

### 1996년 동향 및 전망

1994년 중반부터 장기 불황의 골을 벗어나 회복 및 호황 국면을 보이던 석유화학 경기가 1996년에는 급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기 부진은 내수 부진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다도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상반기의 내수는 수요 산업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고비용 저효율 생산 환경에 따른 유화 가공 업체들의 해외 이탈에 따른 수요 기반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에 그쳤다.

석유화학 수출도 정부 사정 활동의 강화, 과열 경기의 진정과 물가 안정을 위한 금융 긴축 정책의 강화 등에 따른 對중국 수출 감소와 엔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1995년 상반기의 18.3%에 비해 크게 둔화된 12.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1996년 상반기의 석유화학 생산도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조정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에 그쳤다. 1996년 6월의 가동률을 보면 에틸렌은 75%를 기록하였고, 합성수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의 가동률은 69%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규모 신·증설이 마무리된 1993년 초 이후 3년만에 최저 수준인 것이다.

1996년 연간 전체로 보면, 합성수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등 3대 유화 제품의 내수는 하반기에도 국내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995년의 4.4%보다 둔화된 3.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수출은 하반기부터 재고 부족에 따른 중국의 수입 확대와 LYONDELL社(미국)와 PEMEX社(멕시코) 등을 비롯한 동남아 및 남미 국가들의 일부 공장 트러블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회복 정

도가 미약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도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을 반영하여, 1995년의 9.9%에 비해 낮은 6.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전망**

1997년 석유화학의 내수는 자동차, 전자 산업 등 국내 수요 산업의 경기 부진과 유화 가공 업체들의 해외 이전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1996년 대비 3.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석유화학 수출은 1996년에 크게 부진하였던 對중국 수출이 금융 긴축의 완화나 중국내 재고 감소에 따른 수입 확대 등으로 회복되면서 1996년에 비해 15.0%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공급 확대로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총생산 대비 동남아 지역의 생산 비중(에틸렌 기준)은 1983년의 5.0%에서 1992년에는 11.2%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2000년에는 19.0%에 이를 것으로 전

**(표 3) 세계 지역별 설비 능력 비중(세계 총생산 능력 대비)**  
(%)

	1983	1992	2000
북미	36.2	33.2	29.6
서구	31.3	26.0	21.0
일본	9.3	8.9	7.4
동남아	5.0	11.2	19.0
중동	0.8	3.9	6.4

자료: TECNON

망되고 있다. 특히, 신·증설 설비의 상당 부분이 1997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됨으로써, 이 시점을 전후로 가뜩이나 높은 수출 의존도나 對 아시아 시장 수출 의존도를 가진 국내 업체들이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유화 업체들이 높은 투자 의욕을 보이면서 추진해온 신·증설 설비가 1996년 말부터 가동되면서, PE, PP 등에서 상당한 공급 증대가 예상된다. 물론, 80년대 말과 같은 공급 과잉 문제가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단기간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석유화학 시장도 불안해질 것이다.

따라서 1997년 석유화학 생산은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1996년의 6.3%보다 높은 7.9% 증가가 전망된다.

이러한 국내외의 공급 증대 속에서 업체들도 수익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의 증가와 동남아 국가들의 공급 증대에 비해서, 세계 경기는 충분히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생산 물량 조정을 위한 가동률 저하나 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업체들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 불

**(표 4) 석유화학 산업 실적 및 전망**

	(단위: 천 톤, %)				
	1995	1996		1997	
		증감률		증감률	
생산	9,064	9,632	6.3	10,393	7.9
내수	7,211	7,440	3.3	7,730	3.0
수입	1,236	1,320	6.8	1,377	4.3
수출	3,089	3,514	13.8	4,040	15.0

가피하다. 여기에다 유가 상승에 따른 나프타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개방의 영향 확대

이러한 가운데 관세 인하와 수입 자유화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효과도 가시화되면서 내수 시장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1996년 상반기의 수입은 합섬 원료를 비롯한 수입 의존적인 유화 제품의 경우, 업체들이 수입 대체를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상반기의 2.9%보다 훨씬 증대된 8.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입 증가세는 국내 유화 업체들의 경쟁력이 외국 업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비에서 원료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도 일본산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1996년 8월 현재, 1994년에 톤당 600~800 달러로 700~800 달러선인 일본산에 비해 저렴하였던 한국산 LDPE의 가격은 톤당 900 달러로 870~880 달러인 일본산에 비해 20~30

달러가 높아졌다. 1994년에 톤당 500~600 달러로 650 달러인 일본산에 비해 저렴하였던 한국산 HDPE의 가격도 현재는 톤당 830 달러로 820~830 달러인 일본산보다 높아졌다. 이외에도 PP 등 주요 한국산 유화 제품들의 가격이 일본산에 비해 동일하거나 약간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출 시장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국내 업체들은 시장 개방의 확대로 내수 시장마저 크게 위협받음으로써 국내 업체들은 점점 더 발붙힐 곳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기업의 과제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질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997년은 그동안 논의된 구조적 불황기에 진입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

먼저, 조직의 경량화, 기업 경영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원료가 상승, 범용 제품의 수요 정체, 이익률 하락 등에 대처하기 위해 탈화학적 다각화와 성숙화된 범용 제품

〈표 5〉 주요국 에틸렌 생산비 비교

		일본	미국	유럽	사우디	한국
	원료	나프타	나프타	에탄	나프타	나프타
변 동 비	원료비	높음	약간 낮음	약간 높음	낮음	높음
	용역비	높음	중간	약간 높음	중간	높음
	부산물 공제	높음	중간	약간 높음	약간 낮음	약간 낮음
고 정 비	노무비	높음	중간	중간	낮음	중간
	감가상각비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자료: 「석유화학신문」, 1994. 6. 23.

분야의 축소, 특수 고부가가치 분야의 강화 등 사업 영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인 수출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와 같이 높은 의존도 하에서 동남아와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극심한 가격 하락, 생산 가동률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시장 확대나 특정 지역에 집중화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민간 기업간 자율조정 및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자율조정협의회를 보다 차원 높은 기구로 활성화 내지 유효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간의 실질적인 결속력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와 연구 인력 등 연구 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화되는 시장 경쟁 속에서는 가격 우위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의 확보가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송동)**

### 반도체

#### 초호황에 뒤이은 불황의 파도

수출 증가율 80.4%라는 1995년의 초호황에 이어 1996년의 반도체 불황은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한 수준이다. 1997년에 성숙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던 16M D램의 시장 가격이 10달러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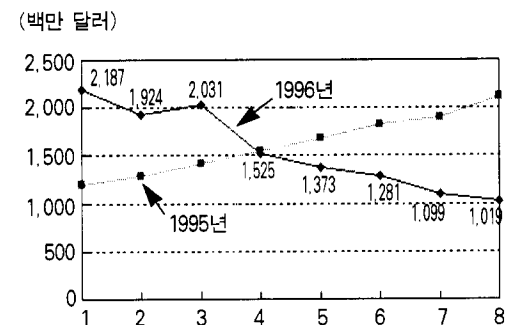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올해의 반도체 수출은 하락을 거듭하여 8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한 10억 달러에 머물고 말았다. 그 결과, 1~8월 중 수출이 124억 달러에 불과해 전년 동기비 4.2% 하락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4.2% 하락이라는 수치도 1/4분기의 수출액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1/4분기 이후 수출액의 수직 감소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수출액의 하락은 16M D램의 가격이 개당 50 달러에서 10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0% 가까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 결국, 우리 반도체 업체의 경우 생산 물량은 작년 대비 약 8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출액은 감소했다.

####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원인

현재의 반도체 불황은 공급 과잉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반도체 업체들은 작년까지 이

〈그림 1〉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통상산업부.

어진 반도체 초호황을 계기로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였다. 4M D램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선두 자리를 빼앗긴 일본은 선두 탈환을 위해 16M D램에 최대의 투자를 단행하였다. 한국 업체들도 선두자리의 고수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였다. 또한 1996년에도 반도체는 높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반도체 수요의 확대를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

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공급 물량의 과다와 함께 PC 시장의 상대적 정체도 공급 과잉을 초래하기에 충분하였다. 세계 PC 시장은 지난해에 25.6%라는 높은 성장을 보였다. 반도체 업계는 펜티엄 칩의 보급과 윈도우95의 발매 등으로 인한 메모리 소요량 증가, 기존 PC를 교체하려는 대체 수요를 기대하고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윈도우95의 판매는 기대 이하였고, PC 수요도 10%대로 하락함으로써 공급 과잉이 야기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주요 PC 업체들의 재고 정책 전환도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일조하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6 주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평균 6 일본 재고

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바뀌어 수요 증가에 어려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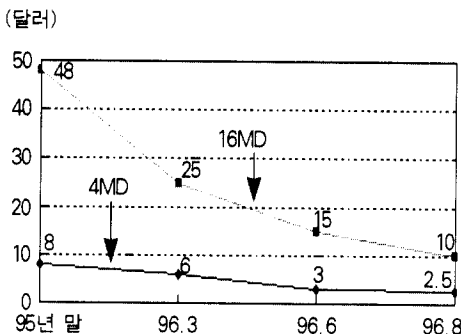
### 가격 하락 저지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대만,

#### 싱가포르의 신규 진입

가격 폭락이 끝없이 지속되자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 물량 조정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업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또는 감산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요 반도체 메이커들이 9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하계 휴가 기간 중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하고 공휴일 휴무를 실시함으로써 가동률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산 조정의 효과는 9월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이 많고, PC 메이커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상당해서 재고 소진에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도체 가격 회복의 관건은 업계의 감산에 대한 실질적인 공조 여부와 새로운 진입 기업의 공급량에 달려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라 라인 가동률을 줄이는 경우, 손실도 커져 업체간 공조체제가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하

〈그림 2〉 반도체 가격 하락 추이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표 6〉 주요 일본 업체의 감산 발표 내용

업체	내용
NEC	월 1,800만 개 → 1,100만 개
東芝	월 1,000만 개 → 800만 개
日立製作所	월 1,500만 개 → 900만 개
富士通	월 1,000만 개 → 800만 개
三菱電氣	월 1,300만 개 → 1,000만 개
東北세미컨덕터	16M DRAM의 투자를 당초 월산 300만 개에서 150만 개로 동결

자료: 「日經産業新聞」, 1996. 7. 17.

기 어렵다. 반도체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 언젠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과 싱가포르 등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만은 茂電子가 독일의 지멘스社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16억 달러를 투자하고 華邦電子는 日本도시바社와 제휴하여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반도체 산업을 최우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產·官이 기술 개발 및 생산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10 년간 반도체 분야에 최소한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TI社와 합작사인 테크세미컨덕터社, 日本히타치社와의 합작 업체인 히타치닛폰스틸세미컨덕터社, 프랑스계인 SGS-톰슨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社 등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신설 또는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는 앞으로 10 년 안에 약 25 개의 대형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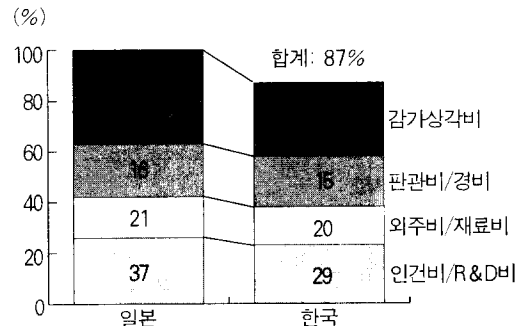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아직은 기술 수준이 국내 기업들보다 뒤떨어져 있으나,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선진 업체들과 제휴해 16M D램이나 64M D램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D램 반도체는 기술 습득이 다른 반도체 분야에 비해 용이해 우리나라가 일본 등 선진 업체를 따라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추격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수율 향상, 새로운 제품 개발 등 경쟁력 유지를 통해 현재의 위기 극복 가능**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요하는 대표적 산업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에 의한 집중 투자와 연구 개발(R&D) 지출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집적도의 제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무라연구소가 분석한 한국과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경쟁력을 보면 알 수 있다. 1995년 현재 월간 웨이퍼 처리 능력 2만 枚인 단일 공장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일본에 비해 13%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율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코스트 경쟁력 비교**



자료: NRI Quarterly, Spring 1996.

(yield: 한 장의 웨이퍼에서 良品의 칩이 나오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업체의 수율은 일본 업체들보다 평균 5%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직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75% 수준인 16M D램의 수율을 높여 생산 비용을 줄이고 고집적도의 제품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한, 현재의 가격 하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하반기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안정되나 수출의 비약적 증가는 어려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은 수요 부진이라기 보다는 공급 물량의 과다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韓日 반도체 업체들은 16M D램의 생산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조업 단축 등을 통한 감산 정책에는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나타나는 수율 향상과 같이, 생산량 증가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세계 PC 시장은 작년만큼은 못되도 올해 3/4분기에도 19%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특수 등과 같이 계절적으로 PC 수요가 증가하는 하반기에 주요 PC 업체들이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보여, 수출 물량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해 175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컴퓨터 업계의 반도체 재고 조정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B/B율(Book-To-Bill Ratio)이 지난 4월 이후로 약간씩 상향 조정되어 8월의 B/B율이 0.9에 이르는 등 반도체 수요 증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반도체 B/B율은 PC 메이커가 크리스마스 수요를 위해 조달을 본격화하는 10월에 들어서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16M D램 가격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 주요 생산 업체들은 16M D램 설비의 확대보다는 64M D램으로의 조기 이행을 시도하고 있다. NEC, 도시바 등 일본의 주요 업체들이 64M D램 생산을 시작했으며, 1997년도에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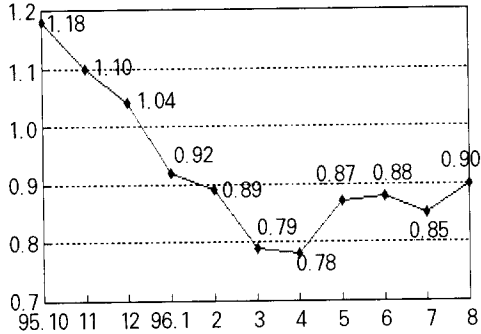
**(표 7) 반도체 시장 전망**

	1995		1996(e)		1997(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생산(억 원)	192,133	40.1	162,352	-15.5	176,152	8.5
내수(억 원)	89,691	34.9	103,234	15.1	113,557	10.0
수입(억 달러)	90.7	80.4	103.9	14.5	116.8	12.4
수출(억 달러)	211.1	70.3	175.6	-20.6	188.4	7.3

주: 1996년 및 19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그림 4〉 반도체 B/B율 추이



자료: SIA(미국 반도체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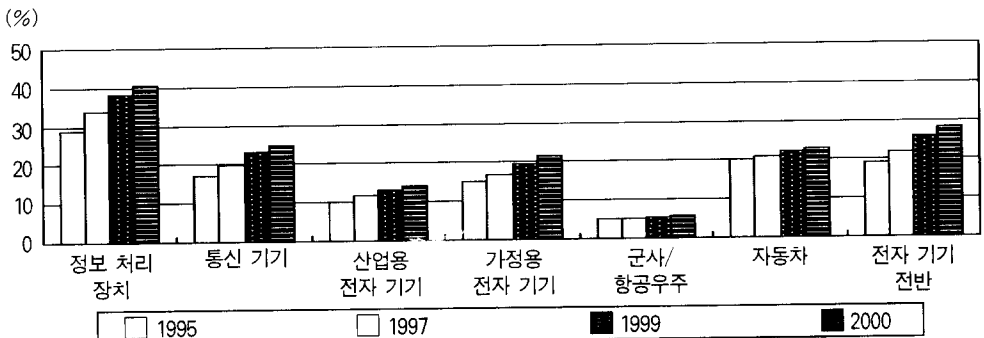
업계의 물량 조정 노력이 1997년 반도체 경기 좌우

1997년에는 반도체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도 약 7.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PC 시장의 지속적 성장, 윈도우95, 윈도우 NT 등 대용량 메모리의 수요 확대, 그리고 멀티미디어화의 진전 등이 반도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기기뿐

만 아니라 통신, 자동차, 전자 기기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앞으로도 밝은 편이다. 반도체를 채용하는 전자 기기의 종류가 확대되고, 멀티미디어화가 보다 진전된다면 실리콘사이클에 의한 호·불황의 변동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침체는 수요 부진과 갑작스런 공급 물량의 증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의 물량 조정 노력 여하가 시황의 회복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6M D램의 세계 수요 전망도 올해 10억 개에서 내년에는 18억 개로 증가(메릴린치 보고서)하는 등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6M D램의 가격 폭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자 64M D램 시장의 조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물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16M D램과 같은 가격 폭락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신광철)

〈그림 5〉 반도체 장착률 전망



자료: 데이터퀘스트.

## 통신 기기

### 1996년 및 현황 전망

- 국내 경기 침체와 달리 상반기 통신 기기 시장은 높은 성장을 기록

작년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통신 기기 내수 시장(수입 + 국내 기업 시판)은 33% 성장한 1조 6,000억 원에 달하여 전자 산업과 조선업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생산 실적은 1조 5,000억 원 정도로 9.2% 성장에 그쳤다. 이는 엔저 현상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무선 통신 기기의 수출이 부진하여 통신 기기의 전반적인 수출 침체를 야기하였다. 국내 수요 확대로 수입은 2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입 대체를 위한 각종 장비 개발, 국산 무선 통신 단말기의 제품 다양화와 품질 향상에 힘입어, 국내 기업의 시판 증가율 36.8% 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점차 비중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무선 통신 기기는 상반기에 53.2%의 시판 성장을 기록하였고 금액 규모도 2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무선 통신 기기의 시판은 서비스 가입과 기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휴대폰이 주도하였다. 당초에는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현상인 구입 유보로 휴대폰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가입비 폐지와 각종 신제품 출시로 국내 시판이 171% 증가하는 초호황을 기록

하였다. 이와 함께 통신 사업자들의 설비 증설로 국내 무선 통신 기기 시판은 51.2% 증가하는 호황을 구가했다.

무선 통신 기기가 상반기에 내수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가 4.2%에 머문 것은 수출이 6% 감소한 데 기인한다. 특히, 무선 통신 기기 수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휴대용 무선 전화기 수출이 36.7%나 감소되었다. 이는 무선 전화기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自社의 수출 지역을 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하는 세계적인 경영 전략을 추진한 데에도 기인한다.

유선 통신 기기는 시판과 수출이 각각 30.5%, 5.5% 성장하고, 생산은 22.3% 증가하여 여전히 무선 통신 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화기는 국내외적인 수요 정체로 생산 물량이 67%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고급화·고가화 경향에 힘입어 금액 기준 생산 실적은 소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정부 구매 축소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던 교환기는 생산액이 43%나 상승하여, 유선 통신 기기 시장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 노력에 의한 수입 대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꾸준한 수출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 하반기에도 통신 기기 시장은 호경기 지속 전망

하반기에는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이 모두 상반기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여 통신 기기 시장은 호경기를 지속할 것이다. 내수 시장에서는 디지

털 서비스의 본격화, 신규 서비스 업자의 판촉 노력 등으로 휴대 전화기를 비롯한 무선 통신 기기가 51.2%의 높은 시판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유선 기기 부문을 보면, 국내에서 개발된 교환기의 출하가 늘어나고 통신 사업자의 투자 확대로 교환기 및 전송 기기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통신 기기 시판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간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점차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원고 현상이 뚜렷하게 퇴조를 보일 것이고, 엔화 가치도 정체 내지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무선 통신 기기 수출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호출기 및 장비 수출 증가, 선진국에 대한 디지털 단말기 수출 회복 등으로 인해 연간 15.1%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무선 통신 장비 분야에서 일부 PCS 장비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외국 업체에서 수입될 것으로 보여 초기 투자분에 대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동남아 생산을 통한 일본의 저가화 전략으로 일본 제품의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볼 때, 1996년도 통신 기기 생산액은 16.3% 성장한 4조 2,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1997년 전망**

○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세계 통신 시장

지금 전세계의 통신 시장은 커다란 변화 속에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통신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화, 개방화, 경쟁체제화 그리고 민간 참여의 확대라는 일련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 속에서 통신 기술 분야는 기존 통신망의 광전송화·고속화와 함께 무선화·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특히, 1996은 한국의 통신 산업에 있어서 일대

**〈표 8〉 1996년 통신 기기 시장 동향 및 전망**

	1995			1996 상반기			1996년 연간		
	전체	유선 기기	무선 기기	전체	유선 기기	무선 기기	전체	유선 기기	무선 기기
생산(억 원)	36,190 (22.3)	19,323 (14.4)	16,867 (31.9)	14,916 (13.3)	8,067 (22.3)	6,849 (4.2)	42,089 (16.3)	22,202 (14.9)	19,887 (17.9)
시판(억 원)	16,097 (32.2)	11,610 (22.0)	4,487 (68.5)	6,882 (36.8)	4,471 (30.5)	2,141 (53.2)	21,248 (32.0)	14,464 (24.6)	6,784 (51.2)
수출(백만 달러)	2,292 (17.3)	849 (21.8)	1,443 (14.8)	1,101 (-1.9)	420 (5.5)	682 (-6.0)	2,578 (12.5)	917 (7.0)	1,661 (15.1)
수입(백만 달러)	1,841 (21.9)	591 (56.2)	1,251 (10.4)	1,105 (24.2)	317 (15.8)	788 (28.0)	2,411 (31.0)	677 (14.5)	1,734 (38.6)

주: 1) 1996년 상반기 생산과 시판 자료는 5월까지의 누계임.

2) 시판은 국내 기업의 국내 시장 판매임.

3)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변화를 겪은 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그간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던 초고속망 구축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 시외 전화 서비스 부문에서 제2사업자의 서비스 공급 개시, 제2이동통신 사업자의 디지털 이동 전화 서비스 개시, 국내 통신 산업의 최대 이슈였던 휴대 통신 서비스(PCS)를 비롯한 7개 분야의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이 국내 통신 산업의 변화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통신 서비스 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의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미 컨소시엄을 통해 PCS 사업권을 따내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신규 서비스에 의한 기존 서비스의 대체뿐 아니라,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통신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따라서 1997년에 국내 경제는 투자가 감소되고 민간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통신 기기 산업은 여전히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통신 기기 시장 전망의 관건은 역시 무선 통신 기기 분야의 향방이다. 우선 단말기 분야를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과연 디지털 통신 기기가 어느 정도 시장을 대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것이냐 하는 점이다. 홍콩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개시 3년만에 디지털 가입자 수가 아날로그 가입자 수의 3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한국이 홍콩보다는 신제품 구매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무선 단말기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각종 장비 수요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투자 확대 속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다만, 1998년에 PCS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이고 서비스 초기에는 이동 전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휴대폰 구입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선 통신 기기 시장의 변수이다.

#### ○ 통신 기기 수요 증가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비 필요

이와 같이 통신 기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선 호출을 위한 페이징(paging) 기술과 무선 전화를 위한 디지털 셀룰러(cellular) 장비는 적극적인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갖춘 국산품 공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PCS 장비도 이미 CDMA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위한 장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신 전용 휴대 전화(CT-2), 주파수 공용 통신(TRS), 무선 데이터 통신 등의 분야는 국내 기술 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수입을 통한 장비 공급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자국 시장의 통신 서비스 사업 개방을 이유로 한국의 통신 장비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EU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통신 장비의 수입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를 볼 때, 통신 기기의 수입은 무선 기기가 37.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32.2% 증가한 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액 상으로 볼 때 PCS 장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단말기 부문에서 국산 제품의 판매

가 크게 증가하고, 무선 통신 기기 국내 시판도 40%대의 높은 증가를 보여 6,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통신 사업자뿐 아니라 공공 기관도 자체적인 광통신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들의 망구축 사업이 허용되어 이 분야에 대한 장비 수요가 예상된다. 따라서 통신 기기의 전체적인 시판 규모는 26.4% 성장한 2조 7,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은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회복과 세계 경기의 상승세 유지로 20% 가량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수출 증대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미국 통신 시장 진출을 통한 PCS 장비의 수출이 기대되며, 동남아 지역에 확대되고 있는 위성 방송 수신기 수출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통신 기기 생산액은 무선 기기가 34% 성장한 2조 7,000억 원대에 이르고 유선 기기가 14% 성장한 2조 5,000억 원대에 달해 전반적으로는 23.5% 성장한 5조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반석)**

〈표 9〉 1997년 통신 기기 시장 전망

	전체	유선 기기	무선 기기
생산(억 원)	5,1959 (23.5)	25,310 (14.0)	26,649 (34.0)
시판(억 원)	26,856 (26.4)	17,122 (18.3)	9,734 (43.4)
수출(백만 달러)	3,102 (20.3)	1,057 (15.3)	2,045 (23.1)
수입(백만 달러)	3,188 (32.2)	785 (16.0)	2,403 (37.5)

주: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공작기계

### 1996년 상반기, 경기 위축기에 접어들다

1994년과 1995년의 고속 성장을 거듭했던 공작기계 산업은 1996년에 들어서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는 1993년 1월의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하는 경기 순환기(제6순환기)로서, 또다른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경기 하강기에 놓여 있다. 공작기계 산업은 본격적인 경기 상승기였던 1994년에 최고의 호황기를 맞았고 이어 1995년까지 경기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내수가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40.6%, 30.2%나 성장했고 생산 규모도 각각 45.6%, 31.0%나 성장했다. 국내의 호경기에 따라 수입도 40%대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 두 해에 걸쳐 수출은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994년에 2억 달러 수준에 접근했으며, 1995년에 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그런데 국내 경기는 1995년 3/4분기를 정점(추정)으로 하강기 접어들면서 공작기계 산업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1996년 상반기에 내수는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에 그쳤다. 1995년 30.2% 증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 위축의 시작은 1995년 4/4분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공작기계 산업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 투자비 증가율 추이에서 잘 나타난다. 즉, 1995년 연간 설비 투자 증가율이 15.9%였는데, 1995년 4/4분기에는 1.5%에 불과했다. 그리고 1996년 상반기에는 3.8% 증가에 그쳤다. 이런 수준은 호

〈표 10〉 최근 공작기계 산업의 수급 동향

	1993		1994		1995		1996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내수(억 원)	10,249	-15.1	14,415	40.6	18,772	30.2	9,038	7.8
수출(억 달러)	1.2	0.5	2.0	60.8	3.6	79.1	2.7	89.3
생산(억 원)	4,712	4.7	6,859	45.6	8,988	31.0	5,044	14.6
수입(억 달러)	8.1	-25.6	11.4	40.4	16.4	43.8	7.8	19.4

주: 1) 원/달러 적용 환율은 1993년 802.54 원, 1994년 803.8 원, 1995년 774.7, 1996년 780.0 원(E)임.

2) 수출입은 MTI 분류에 따른 것임.

3) 수출입 증감률은 달러 기준임.

황기였던 1994년의 23.3%, 1995년의 15.9% 과 비교해볼 때 매우 낮다.

결국, 공작기계 산업의 성장세는 1995년 4/4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으며, 1996년 상반기에 하강세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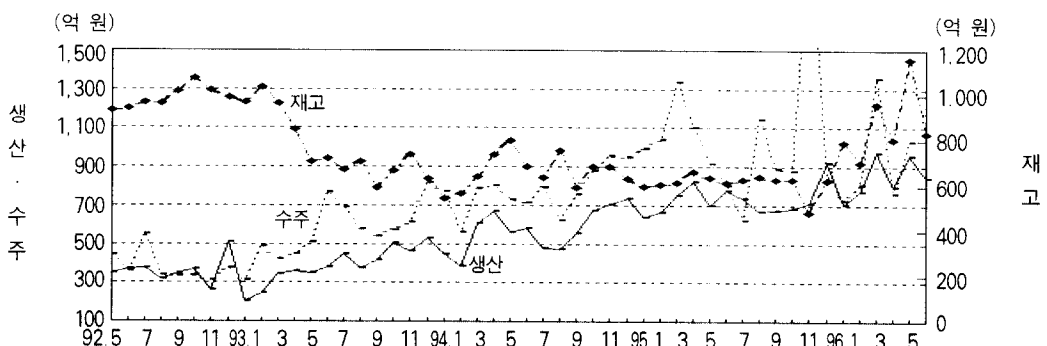
### 경기 위축 속에 수출 증가세는 지속

1996년 상반기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난 1996년 5월의 재고액이 이번 경기 제6순환기(1993. 1~) 중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고 수준인 1,158.2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그림 6〉 참조). 지금까지 최고의 재고

수준은 버블 경기가 사라지면서 나타났던 1992년 10월의 1,077.3억 원이었다. 1995년 생산이 31.0% 증가한 반면, 재고는 7.0% 줄었다. 그러나 1996년 상반기를 보면 생산은 14.6% 늘어난 반면, 재고는 1995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35.1%나 늘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995년 수준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즉, 1996년 상반기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3% 증가로서 1995년의 79.1% 증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자동

〈그림 6〉 공작기계 생산, 수주, 재고



차,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출 주력 산업이 수출 가격 하락, 경쟁력 약화, 엔저 현상 등에 따라 수출 신장세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 공작기계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생산 증가율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급격한 생산량 감축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수출 신장세가 유지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공작기계 업계의 수출 산업화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업계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소형 NC 선반과 MC를 주력 수출 상품으로 삼아, 다양한 제품 개발, 수출선 다변화, 딜러망 확충 등을 통해 수출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1996년 전망**

1996년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 경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상반기의 3.8%보다 약간 높은 4.5%(본 연구원 전망)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연간 4.2% 신장세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96년 내수는 1995년의 30.2% 수준을 크게 밑도는 5.6% 신장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출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엔저에 따라 가격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쟁 업체인 일본 업체들은 엔저에 힘입어 지난 5월부터 연이어 가격 인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다. 당장 이번 7월의 수출 증가율은 4.4%로 급락했다. 결국, 하반기 수출은 엔저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상반기보다 둔화되어 연간 52.8%의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생산은 내수가 위축되고 재고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하락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다소 신장세가 둔화된 것이라도 수출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산의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은 내수 위축에 따라 급속히 하락하여 1995년의 43.8%보다 훨씬 낮은 7.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1996년도 및 1997년도 공작기계 수급 전망**

	1995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내수(억 원)	18,772	30.2	19,818	5.6	21,047	6.2
수출(억 달러)	3.6	79.1	5.5	52.8	6.8	23.6
생산(억 원)	8,988	31.0	10,340	15.0	10,986	6.2
수입(억 달러)	16.4	43.8	17.7	7.5	19.1	8.3

주: 1) 원/달러 적용 환율은 1995년 774.7 원, 1996년 780 원, 1997년 817 원임.

2) 수출입은 MTI 분류에 따른 것이며, 증감률은 달러 기준임.

3) 1996년 및 19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 1997년 전망

1997년은 1996년과 비교할 때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나, 내수 2조 원, 생산 1조 원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 투자 증가율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4~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작기계의 내수는 1996년의 신장세와 거의 비슷한 6.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위축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출에 진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다변화의 여력이 소진되고 있고, 100 엔대 이상의 엔저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NC 선반과 MC가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장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다. 즉, 수출은 1996년에 비해 23.6%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에 따라 생산 증가율은 1/2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작기계 업체는 1997년에 예상되는 낮은 생산 증가율로 체감적으로도 경기 침체를 느끼게 될 것이다.

## 대응 과제

이상에서 볼 때, 1996년과 1997년의 공작기계 산업 경기는, 고성장을 보였던 1994년, 1995년과 달리 저성장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설비 투자가 급속히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고수준의 수출 경기가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공작기계 산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서 경기 하강기를 슬

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경기 회복에 접어들 때를 대비해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즉, 현재 60%가 넘는 수입 제품을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수입 대체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경기는 1997년 하반기부터 상승기를 맞기 시작할 것이나, 본격적인 설비 투자는 1997년 말~1998년 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작기계의 내수 시장은 1998년 2/4분기경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회복이 국내 업체에게 매출액 증가로 연결될지의 여부는 바로 기술력과 제품의 신뢰성이 국내 업체에게 얼마나 수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 향후 세계 공작기계 시장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먼저, 세계 공작기계 시장은 선진국보다는 최근 급속히 성장을 맞고 있는 후발 경제 개발국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이들 국가들에 대응할 만한 기종은 기본적으로 중소형·저가격 기종일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적어도 버블 경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성능이 높으면 가격이 높아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지만, 버블 경기가 무너지자 기본적으로 성능은 적절하지만 하면 되지만 가격은 반드시 낮아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품 사상이 바뀐 것이다. 결국, 향후 경쟁 구도는 저가격 대량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 맞춰 국내 업체는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로서 정보 기술을 제품과 제품 생산 과정에 적용하는 문제에 우리 업체는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CALS, SI, PC NC 등과 같은



정보 기술은 공작기계 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작기계 역사에서 종래의 기계 기술에 전자 기술이 적용·융합됨으로써 산업 구조가 큰 전환기를 맞았던 것처럼, 정보 기술의 도입·융합도 산업 내에서 새로운 경쟁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속히 기술혁신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공작기계 산업은 오랜 동안의 수입 의존형 산업에서 수출 산업화로 발돋움해나가는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핵심 부품과 설계 기술에서 매우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효율적인 혁신체제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 연관, 전문 부품 업체와 조립 업체간의 분업 연관, 수요자와 생산자간의 혁신 정보 교류 능력과 방식,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정책 등에서 우리나라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류재현)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내수는 승용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자동차 대중화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경차 우대 정책에 따른 경차 수요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상용차의 경우 경기 침체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은 승용차의 경우, 전년 동기의 증가율 41.9%에 비해 대폭 낮아진 18.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5년 상반기 수출이 1994년 상반기보다 대폭 증가한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금년 들어 수출선 다변화의 한계,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향상, 개도국들의 수입 규제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수입은 1994년 95.4%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확대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1996년 1~5월 중에도 전년 동기 대비 48.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자동차

#### 1996년 상반기, 수출 증가세 둔화

1996년 상반기 중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전년 동기의 41.9% 성장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부진을 보였다. 비록 내수가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 동기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6년 상반기 중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년에 이어 성장

〈표 12〉 1996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의 현황

		(단위: 천 대)		
		1995	1996	증감률(%)
		상반기	상반기	
내수	승용차	524	594	13.4
	상용차	217	224	3.2
	소계	741	818	10.4
수출	승용차	412	503	22.1
	상용차	69	69	0.0
	소계	481	572	18.9
계		1,222	1,390	13.7
수입		2,547	3,785	48.6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각호

주: 수입의 1995년, 1996년 통계치는 1~5월까지의 누계임.

### 중형차 비중, 대폭 확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 구조가 소형차 중심에서 중형차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소형차(경차 제외)가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2%에 달하던 것이 1995년에는 49.2%를 기록해 점차 비중이 낮아졌다. 소형차 수요도 1995년에는 12.2%가 감소하였다. 금년 상반기 중 소형차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9.4%가 감소한 25만 4,400 대를 기록해 점유율이 40.6%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는 달리 중형차가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23.9%에 머물렀으나, 1995년 30.2%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중형차의 수요도 20%를 넘는 높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중형차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4%가 증가한 약 23만 7,200 대를 기록해 점유율이 41.1%에 달하고 있다.

신차 구입 유형도 신규 수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체 수요 비중과 추가 수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가용 승용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ICS(초기 고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신규 구입자(처음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의 비율은 36.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대체 수요는 1993년을 분기점으로 신규 수요보다 많아졌고 이후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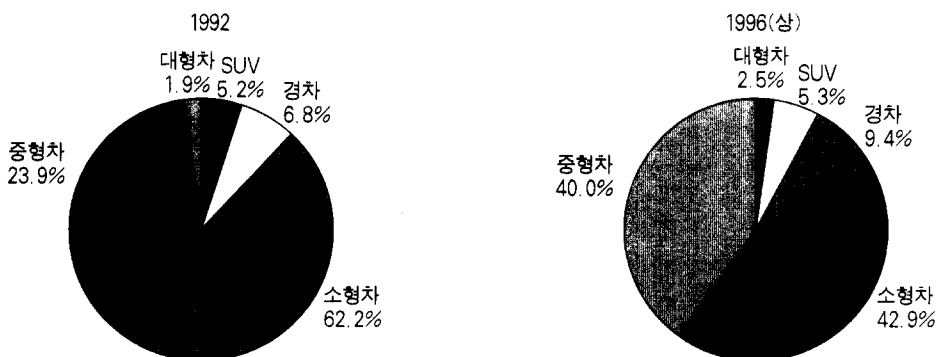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경차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31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경차가 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각종 세제 지원 등에 힘입은 것이다. 경차 소유 동기는 가격 상의 이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책, 자동차 시장 성숙에 따른 세컨드 카로서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도 자동차 대중화<sup>1)</sup>가 성숙기에 진입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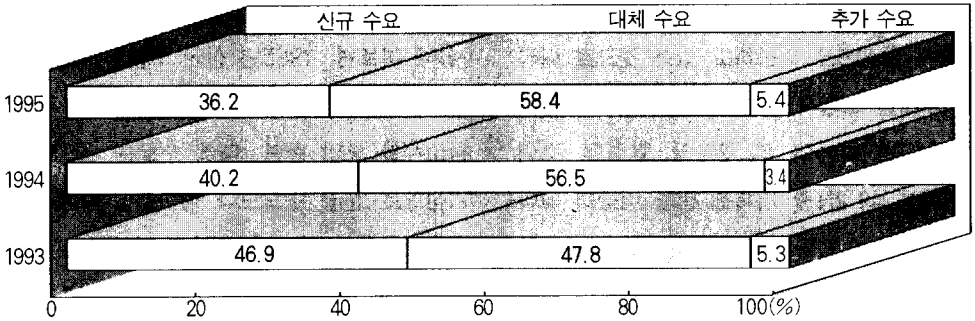
### 수출 경쟁력 약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포니의 미국 시장 진출

〈그림 7〉 차급별 비중 추이



〈그림 8〉 신차 구입 유형 추이



을 계기로 198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1989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수출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91년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업체들의 노력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 최대 경쟁 업체였던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이 옅고 현상으로 급격히 약화되면서, 1995년에는 자동차 수출 대수가 약 97만 9,000 대를 기록해 자동차 수출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6년에 들어서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1996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엔저 현상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수출선 다변화 전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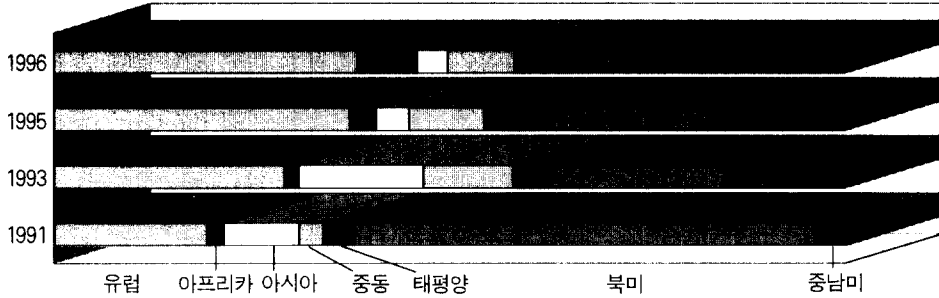
한계에 이르면서 시장 개척 효과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시장에서도 선진 업체들의 적극적인 판매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는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형차 시장의 축소로 국산차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유럽 지역이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 진출 초기와 같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 역시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급격히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선진 업체들의 월드카 및 아시아카 개발로 인해 시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혼다의 '시티'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국내 자동차를 앞서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도요타나 벤츠 등 선진 자동차 업체들이 저가 소형차 개발로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 자동차 대중화의 성숙기는 대체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신규 수요 및 보유 대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현상임. 자동차 대중화가 성숙기에 진입하는 시점의 특징은 보급률 상승폭이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보급률 증가율이 15.6%로 전년에 비해서 증가 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9)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수출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 對 수출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4년 내수 對 수출 비율이 68:32에서 1996년 상반기에는 59:41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생산 규모를 확장<sup>2)</sup>할 계획으로 있다. 생산 규모 확대는 내수 한계로 인해 수출 증대로 타개해야 하나 작금의 수출 여건 악화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 수입차 가운데 중형차 비중 확대 추세

1996년 1~5월 중 수입차 판매는 3,785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6%의 증가율을 보였다. 동기간 중 수입차가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0.55%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수입차의 시장 확대는 가격 인하 또는 저가 모델 도입, 유통 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판매망

확충, A/S체제 확충 등 해외 업체들의 적극적인 전략에 기인한다. 게다가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차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도 수입차 시장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입차의 내수 구조도 대형차·고급차 중심에서 중형차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차 가운데 2,500 cc 이하 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포드자동차사는 1,600 cc, 2,000 cc인 '몬데오'의 가격을 각각 1,600만 원, 2,1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크라이슬러사도 2,000 cc의 '네온' 가격을 1,750만 원으로 책정하여 금년 9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가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되는 1999년에는 일본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BMW社, 미국 포드社, 크라이슬러社에 이어 GM社, 볼보社 등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직판 채비도 진척되고 있어, 향후 내수 시장에서의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 완성차 업체가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최소 효율 규모(MES: Minimum Efficient Scale)는 이론적으로 약 200만 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13〉 수입차 내수 판매 현황

(단위 : 대, %)

구분	연간	1996		1996	
		1~5월	점유율	1~5월	점유율
1,500~2,000 cc	2,157	819	32.2	1,100(34.3)	29.1
2,001~2,500 cc	1,570	617	24.2	1,238(100.6)	32.7
2,501~3,000 cc	1,643	681	26.7	728(6.9)	19.2
3,000 cc 초과	1,184	430	16.9	719(67.2)	19.0
합계	6,554	2,547	100.0	3,785(48.6)	100.0

자료: 수입자동차협회.

주: 1)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Gray Importer에 의한 수입차 판매분 제외.

2)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소형차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유형이 점차 대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소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받을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소형차 수출에서의 손실을 중형차 내수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보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수입선 다변화가 해제되어 소형차 수입이 개방될 경우, 수출 주력 차종인 소형차급에 대한 국내 수요 기반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형차 생산 규모 축소를 유발하여 한국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내 자동차 업체들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여지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6년 전망

1996년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162만 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대중화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수요 정체로 전년 대비 3.8% 증가율에 그

칠 전망이다. 상용차의 경우 여가 선호 증대에 따른 다목적 차량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5.0%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117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동구권과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지속과 서유럽 및 중동 지역으로의 안정적 성장세 유지 등으로, 승용차 수출이 전년 대비 21.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은 전년 수출 증가율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인데, 이는 엔저 현상,

〈표 14〉 1996년 내수 및 수출 전망

(단위: 천 대)

		1995		1996(예)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내수	승용차	1,132	-0.7	1,175	3.8
	상용차	424	2.2	445	5.0
	소계	1,556	0.0	1,620	4.1
수출	승용차	856	32.1	1,040	21.5
	상용차	122	35.6	130	6.6
	소계	978	32.5	1,170	19.6
합계	2,535	10.5	2,790	9.7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각호.

주: 수출에서 KD는 제외.

수출 다변화의 한계, 선진 자동차 업체의 저가 소형차 개발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수출 여건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 수출의 확대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1997년 전망

1997년 자동차 판매는 총 300만 대에 이르러 1996년보다 6.8% 증가할 전망이다.

내수의 경우, 1996년보다 5% 정도 증가한 17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대중화의 성숙기 진입으로 수요 정체가 예상되나, 내수 경기 부양책 및 대체 수요의 활성화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124만 5,000 대에 이를 전망이다. 상용차의 경우, 경기 부진 여파의 지속으로 1996년보다 4.7% 증가한 46만 6,000 대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은 크게 둔화되어 1996년보다 9.3%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승용차 수출은 대만과의 수출 재개 가능성, 브라질과의 쿼터 협상 등으

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수출선 다변화 한계 지속, 선진 자동차 업체들의 저가 소형차 개발 등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상용차 수출은 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 재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 지속에 따른 상용차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1.5% 증가할 전망이다.

### 대응 전략

엔저 현상, 수출선 다변화의 한계, 외제차 수입의 확대 추세 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진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이 국내 자동차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최소 효율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엔저라는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그보다는 국내 자동차 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외에서 선진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가격 경쟁력 확보

먼저,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5,000여 종류, 2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조립체이기 때문에, 자동

〈표 15〉 1997년 자동차 내수 및 수출 전망

(단위: 천 대)

	1996(e)		1997(e)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내수	소계	1,620	4.1	1,701	5.0
	승용차	1,175	3.8	1,235	5.6
	상용차	445	5.0	466	4.7
수출	소계	1,170	19.6	1,300	9.3
	승용차	1,040	21.5	1,155	9.1
	상용차	130	6.6	145	11.5
합계	2,790	9.7	3,001	6.8	

주: 1996년, 19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임.

차 경쟁력은 주로 부품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품 조달 비용을 감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 업체의 시스템화, 부품 조달의 모듈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부품 공용화와 부품 수 축소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품 조달 구조로서는 가격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부품 업체의 대형화<sup>3)</sup>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품 업체들의 연구 개발(R&D) 능력을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부품 업체로 이전하는 외주 확대 전략도 필요하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연구개발(R&D)체계의 효율화와 신차 개발 기간의 단축도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 ○ 현지 생산 전략

가격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요구되는 것은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이다. 최근 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KD 조립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진 자동차 업체의 경우, 해외 현지 생산이 총생산에서 약 30~40%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현지 생산은 무역 장벽의 효과를 최소화시키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외 생산 기지의 선정이나 부품조달체계, 연구개발(R&D)체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 ○ 지역별 제품 차별화 전략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선 다변화 전략으로 유럽 지역이 최대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며,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 등 선진 지역으로의 수출은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신흥 성장 시장인 중남미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도 선진 자동차 업체들의 저가 소형차 개발로 인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형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 지역으로의 수출은 품질 경쟁력이 갖춰진 중형급 차종의 수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유럽 지역은 경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남미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이들 지역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가 소형차 개발로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3) 국내 최대의 부품 업체의 경우, 세계에서 80~100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데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연 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환경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개발도 저공해 자동차 개발과 리사이클링 기술 등 환경 대응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응 전략과 함께 선진 업체에 비해 낙후된 기술이나 품질, A/S 측면에서도 전력을 투구하여, 양적 성장 전략뿐만 아니라 질적 내실화 전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윤창호)

## 조선

### 심한 수주 부진 속에서 수출은 대폭 증가

1996년 신조선 수주는 550만 GT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보다 23% 정도 감소한 물량으로 증대된 건조 설비 능력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신조선 수주가 급감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발주 물량이 감소한 데 있다. 세계 신조선 시장은 1995년 2,295만 GT에서 올해는 2,100만 GT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 해운 경기 부진과 선박 공급 과잉으로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선박의 발주 물량이 1995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대형 유조선(VLCC)의 대량 해체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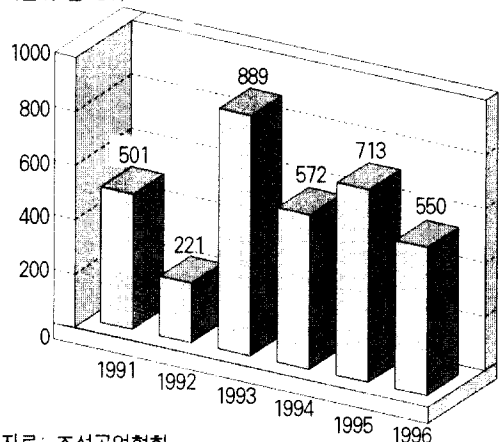
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1995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엔저 현상으로 인해 對日 가격 경쟁력 우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 820 원/달러, 110 엔/달러에서의 對日 가격 경쟁력은 98.4(일본의 총 제조 원가를 100으로 기준)로서 일본 업체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품질, 납기 등 비가격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쟁력 약화의 주 원인은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유리한 환경 속에서도 생산성 향상, 해외 자재 조달 등 비용 절감 노력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일본과의 수주 경쟁에서 잇따른 패배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10% 이상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도 가격 경쟁력을 압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0〉 연도별 수주량 추이

(단위:만 GT)



자료: 조선공업협회.

주: 1996년은 연구원 전망치임.



수출은 1995년 대비 30.7% 증가한 6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각 조선사별로 신·증설된 도크들이 가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산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1994~95년 기간 동안 대량 수주하여 확보된 건조 물량도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남은 일감을 나타내는 수주 잔량은 6월 말 현재 1,191만 GT로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11.2%나 감소하였다. 이같은 수주 잔량은 조선 업계의 증대된 건조 능력을 고려할 때, 1년 6개월치도 되지 않는 일감인 것이다. 앞으로 수주가 계속 부진하게 되면 증설된 도크를 돌려야 할지도 모르는 우려감이 든다.

**일본 조선 업계의 공급 능력 확대**

지난 1993년 이후 지속되어온 엔고의 영향으로 한때 우리나라에게 수주량 1위 자리를 넘겨주었던 일본은 여러 방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는 생산성 향상, 설비 근대화 및 효율화,

해외 자재 조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가 절감 노력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 수주 실적이 547만 GT로 우리의 세 배가 되고 있다.<sup>4)</sup>

80년대 초반에 일본 조선 업체들이 세계 신조선 수급 균형 유지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비 규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한국 등 후발 조선국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확장을 진행하여 일본 수급 조정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특히, 1993년 말 한국의 설비 규제 폐지는 한국 조선 업체들의 건조 능력을 대폭 확대시켜 일본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1995년 말의 엔저 국면 이후 日本運輸省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발표되어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면 일본의 건조 능력은 현재 900만 GT에서 1,100만~1,350만 GT까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조 능력 증대는 세계 전체 건조 능력을 8~

**<표 16> 세계 건조 능력 전망**

(단위: 백만 GT)

	1996	1998년 잠재적 건조 능력 <sup>1)</sup>			1998년 현실적 건조 능력 <sup>2)</sup>	
		규제 유지	규제 완화	규제 폐지	규제 유지	규제 완화·폐지
한국	8.0	8.0	8.0	8.0	8.0	
일본	9.0	9.0	11.0	13.5	10.5	
기타	8.5	8.5	8.5	8.5	8.5	
합계	25.5	25.5	27.5	30.0	27.0	

자료: NRI, 1996.

- 주: 1) 인원 증강,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경우임.
- 2) 인원 증강,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임.

4)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기업경제」, “일본 조선 업계의 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1996. 6. 참조.

20%까지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곧바로 건조 능력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도크의 물리적 증가를 위해서는 인원 증강 및 용접·도장 등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의 선가 수준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져 건조 능력 확대가 1,050만 GT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 조선 업계의 공급 능력 확충으로 다음 세 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sup>5)</sup>

첫째, 선박 건조 능력 증대로 선가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실제적으로 건조 능력 증대가 이루어지면, 이의 가동을 위한 수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어 선가 상승을 억제하게 된다. 또 종류가 같은 선박의 대량 연속 건조로 비용이 절감되는 조선소가 현재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도 선가 상승을 억제하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규제 완화는 일본 조선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조 도크의 회전율을 높여 적당 고정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셋째, 일본 조선 업체들 사이에서 기업간 격차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규제 완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즉, 인원 증가없이 생산성 향상만으로도 건조량을 늘릴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하는 업체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본 조선 업계의 건조 능력 확대는 우리 조선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가 상승 억제는 가뜩이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우리 조선 업체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對日 경쟁력 열위의 상황 속에서는 조선 시장에서의 수주 확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다.

### 1997년 전망

수주는 1996년보다 16.4% 정도 증가한 640만 GT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세계 전체 발주량이 올해보다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업체들이 이미 1998년 상반기까지 조업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여서 납기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생산성, 원가 등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700만 GT 이상의 수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현재의 조선 설비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 설비를 증대시킬 계획이 있어 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출은 1996년보다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어 3.3% 정도 증가에 그쳐 68.2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97년 초에 생산 및 수출이 이루어질 물량 가운데 일부분이 1996년으로 앞당

5)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조선공업협회보」, 1996. 7. 참조.

〈표 17〉 1997년 조선 전망

		1995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주	억 달러	67.9	15.5	55.8	-17.8	65.0	16.5
	천 GT	7,133	12.0	5,500	-22.9	6,400	16.4
수출	억 달러	50.5	13.1	66.0	30.7	68.2	3.3
	천 GT	5,653	9.7	7,543	33.4	7,790	3.3
생산	억 달러	51.5	14.3	66.2	28.5	69.0	4.2
	천 GT	5,663	9.5	7,547	33.3	7,800	3.4

주: 1996년 및 1997년은 본 연구원의 전망치임.

거 건조될 예정에 있고, 증대된 건조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주 잔량 소진이 급속히 이루어져 작업량 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96년의 수주 부진 여파가 1997년의 생산 및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가 절감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위기 극복**

향후 2005년까지 연평균 2,400만 GT 내외의 신조선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70년대의 조선 호황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조선 시장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설비 규제 완화를 통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표 18〉 세계 신조선 수요 전망(연평균)

	(단위: 백만 GT)	
	1996~2000	2000~2005
한국조선공업협회	24.9	26.4
일본조선공업협회	18.5	24.1
AWES	24.3	20.7
영국 OSC	24.2	26.4

자료: 한국조선공업협회.

우리 조선 산업의 경우도 현재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한층 더 배가시켜 조선 시장에서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열위 요소를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비용 부문과 기술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비용 부문에 있어서는 건조 비용 원가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조선 업체들간의 중복 투자 방지, 기자재 표준화 및 통합 구매 등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선 업체별 생산을 전문화시키고 각 조선소의 협업화와 분업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주력 선종별 생산의 특화, 기업간 공동 수주, 생산 관리 기법의 상호 교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생산 공정 자동화, 물류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투자 시점은 앞당기고, 투자 규모는 더욱 증대시켜나가야 한다. 일본은 엔고로 인한 채산성 악화 속에서도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차세대 선박 등 여러 부문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일본 조선 업체 7 개사의 생산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박 설계에서 건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 50만 개에 이르는 선박 부품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어 원가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 가운데 있는 선박의 설계·공정 계획·생산 기술의 데이터베이스화, 컴퓨터에 의한 생산(CIM) 방식 도입, 각 조선소의 생산시스템 통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및 차세대 선박에 대한 건조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집중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21세기의 세계 조선 시장 주역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차원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희식)

## 건설

### 건설 환경 변화

최근 건설 환경은 국내 건설 시장 개방을 계기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1996년 외국 건설 업체의 국내 지사가 허용되고 이어 1997년에는 공공 건설 시장 개방이 계획되어 있다. 외국 건설 업체들이 이미 국내 면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sup>6)</sup> 내년부터 국내 공공 건설 시장에 외국 업체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6) 미국의 다니엘, 벡텔, 일본의 후지타를 비롯한 5 개 업체가 면허 신청.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3년부터 건설업 면허를 개방해 국내 건설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켰고, 1996년 들어서는 건설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전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공사 건당 수주 규모를 한정했던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건설관리제도(CM: Construction Management)<sup>7)</sup>를 도입하는 제도 준비에 착수했다.

이러한 시장 개방으로부터 비롯된 건설 환경 변화 외에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실명제 실시, 토지·주택 행정 전산망 원비 등 국내 건설의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도 가수요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가격 등락의 폭도 80년대보다는 크게 줄었다. 국내 건설 환경은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시장 개방으로 인해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 1996년 전망

1996년의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18.7% 성장보다 크게 낮은 13.1% 성장에 머무를 전망이다. 민간 건설 수주는 전년 18.7%의 성장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해 9.6% 수준에 머무른 데 비

7) 건설관리제도란 민간 또는 공공 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에 의해 관리자가 선정되어 발주자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설계 검토, 품질 관리, 공정 관리, 비용 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관리하는 방식임.

〈표 19〉 1996년 건설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1995	1996(e)		
			증감률	증감률	
민간 수주	건축	32.40	17.0	35.6	9.9
	토목	3.18	41.3	3.4	6.3
	소계	35.58	18.7	39.0	9.6
공공 수주	건축	6.98	9.7	9.2	31.4
	토목	17.37	37.9	19.6	12.6
	소계	24.35	21.1	28.8	18.0
총수주액		59.93	19.8	67.8	13.2

주: 1) 1995년은 실적치.

2) 1996년은 본 연구원 전망치.

하여, 공공 건설 수주는 정부 투자 확대에 힘입어 18%대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작년 말부터 주택 수요 부진이 심화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가 증가했다. 정부는 건설 업체 부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계획된 공공 공사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1/4분기에 조기 발주했다. 이러한 상반기의 공공 건설 물량의 조기 발주로 철근, 시멘트 자재 파동까지 겪었다. 이러한 공공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는 건설 수주가 19%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공공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국내 경기 하강이 본격화하기 시작해, 국내 건설 수주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 및 주택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건설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사회간접자본 민자 사업도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해 참여 기업들이 적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축 허가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9%나 감소하여 건설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서 공공용 건축 허가가 21.5%나 감소하였고, 상업용 건축 허가는 19.7%나 감소하였다.

올해 민간 건설 부문의 부진은 건축과 주택 양 부문의 위축에서 기인한다. 우선, 민간 건축 수요는 국내 경기의 본격 하락 전망에 따라 사무용 건축 수요가 축소되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옥 건축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주택 부문은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파트 분양률 저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표 20〉 건축 허가 면적 추이

(단위: 1,000 m<sup>2</sup>, %)

	1995년 상반기	1996년 상반기	증감률
전체	62,588	54,516	-12.9
주거용	32,649	29,749	-8.9
상업용	16,590	13,315	-19.7
공업용	7,427	5,829	-21.5
기타	5,922	5,623	-5.0

주: 건설교통부.

산 가격 안정세 지속과 지역별, 평형별 아파트 수급의 괴리에 기인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1995년 10월에 최고 16만 가구에 달했다가 1996년에 들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지원 대책에 힘입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12만 호 이상이 남아 있고,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도 1만 4,000 가구 가량 남아 있다.

미분양 아파트 확산과 주택 건설 업체 도산 확대로 정부는 주택 할부 금융을 허용했으나,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주택 정책이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또는 소득 증가에 따른 아파트 수요의 변화에 건설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 개발에 있어서도 정부가 민간이 개발하도록 허용한 준농림지도 용수 확보 미비에 따른 건축 허가 지연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주택 부문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명제나 금융실명제 그리고 토지 주택 행정 전산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아파트 수요의 변화에 건설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택지 민간

**〈표 21〉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1,000 호)				
	1995. 10	1996. 1	1996. 3	1996. 7
미분양 주택	106	159	126	128
준공 후	16.5	17.5	14	14

자료: 건설교통부.

개발, 아파트 평형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1997년 전망**

1997년 국내 건설은 1996년보다 약간 낮은 12.9%의 성장으로 76조 5,000억 원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민간 부문은 올해보다 낮은 8.8% 성장에 머무는 데 비해, 공공 부문은 올해보다 높은 18.5%대에 이를 전망이다.

민간 부문의 주택 부문은 약간 활성화되는 반면, 건축 및 토목은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것이다. 다만,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부문 건설 투자를 확대해 공공 부문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의 건축 및 토목 수요는 올해보다도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기 하락에 따라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신규 건축 수요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 부문은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매매가의 70~80% 수준에 이르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 축소로 인해서

**〈표 22〉 1997년 건설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1997(e)	증감률	
민간 수주	건축	38.88	9.2
	토목	3.54	4.1
	소계	42.42	8.8
공공 수주	건축	11.35	23.4
	토목	22.78	16.2
	소계	34.14	18.5
총수주액	76.55	12.9	

주: 1997년 전망은 본 연구원 전망치.

그동안의 대기 수요가 구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고, 할부 금융 등 부동산 금융의 저변 확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주택 분양률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가의 상승을 막기 위하여 중형 임대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임대 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내년에는 민간 임대 주택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은 1996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996년의 6조 9,000억 원에서 1997년에는 8조 2,000억 원을 책정해 19.2% 가량 증가시켰다.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차관 허용이 예상되고, 지자체의 주민 복지 건축 물량도 올해보다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신규 참여 건설 업체의 증가와 외국 건설 업체의 공공 건설 시장 참여로 인하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미 1996년 새로운 면허를 신청한 업체 수가 예년에 비하여 수가 많고,<sup>8)</sup> 1997년의 공공 건설 시장 개방

에 대비해서 외국 굴지의 건설 회사들도 국내 지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서 1997년 국내 건설 시장은 국내외 건설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개별 건설 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한계 기업의 도산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업체들은 이제 과거와 같이 자체 공사로 도급 한도를 늘려서 공공 부문으로 진출하는 식의 양적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 분야에 실적을 쌓고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개방시대의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김선덕)

〈표 23〉 1997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단위: 조 원)	
	1996	1997
사회간접자본 예산	6.9	8.2

자료: 재정경제원.

8) 올해 980여 개 업체가 건설업 면허 신청 중임.